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 622

- □□

정보

개요
곡명: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 622
작곡가: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장르: Clarinet Concerto in three movements
작곡 시기: 1791년 가을, Vienna. 10월 7–8일 무렵 피날레의 관현악화가 진행 중이었으며 , 자필 작품목록의 항목에는 날짜가 없다.
초연: 1791년 10월 16일 Prague에서 Anton Stadler가 연주한 것으로 널리 여겨지지만 , 그날의 프로그램은 전하지 않는다.
편성: Solo Basset Clarinet in A 또는 Solo Clarinet in A; 2 Flutes; 2 Bassoons; 2 Horns; Strings
소요 시간: 약 28–31분

IMSLP: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 622

Wikipedia: Clarinet Concerto (Mozart)

Mozart의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 622는 A장조의 두 빠른 악장 사이에 D장조 Adagio 를 둔 세 악장 협주곡이다 . 제 1악장에서는 관현악이 주제를 펼친 뒤 독주 클라리넷이 같은 재료를 새 선율과 음역 이동으로 다시 풀어 간다. 제 2악장은 독주가 긴 선율을 먼저 노래하고 관현악이 응답하며, 피날레에서는 6/8 박자 론도의 후렴과 성격이 다른 에피소드들이 교대한다. 관현악에서 독주로, 높은 음역에서 낮은 음역으로 중심이 옮겨 가는 과정이 세 악장을 이어 주는 기본 흐름이다.

오케스트라는 플루트 2, 바순 2, 호른 2와 현악으로 이루어진다 . 독주 대목에서는 주로 현악이 반주하고, 플루트ㆍ바순ㆍ호른은 관현악 전체가 돌아올 때 형식의 경계를 선명하게 한다. 이 곡의 움직임은 독주자와 오케스트라가 큰 음량으로 맞서는 데서 생기기보다 , 주제가 서로 넘어가고 반주의 두께와 음역이 달라지는
데서 생긴다.

이 흐름을 만드는 데에는 독주 악기의 넓은 음역도 큰 몫을 한다. Mozart가 Anton Stadler를 위해 쓴 독주부는 보통의 A조 클라리넷보다 네 반음 아래인 낮은 C까지 내려가는 A조 바셋 클라리넷을 전제로 한다. 이 음역을
낼 수 없는 일반 A조 클라리넷용 초기 인쇄본은 일부 선율을 위로 옮겼다. 현대 복원판은 남은 단편과 문헌을 바탕으로 낮은 선율을 되살리지만 , 완성 자필 총보가 없어 세부는 판본마다 다르다. 오늘날에는 전통 A 클라리넷판과 바셋 클라리넷 복원판이 나란히 연주되며, 둘의 차이는 음색뿐 아니라 선율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지도 바꾼다.

성립과 초기 전승

Mozart의 자필 작품목록에는 작품명이 날짜 없이 적혀 있고, 수신자는 “elder Mr. Stadler”로 밝혀져 있다. 더 구체적인 단서는 1791년 10월 7–8일 Constanze에게 보낸 편지다. Mozart는 그때 “Stadler의 Rondo”를

거의 모두 관현악화했다고 썼다. 이 대목은 피날레 작업이 10월 초까지 이어졌음을 보여 주지만, 10월 7일을 완성일로 확정해 주지는 않는다.

10월 16일 Prague의 Stadler 연주회는 이 협주곡의 초연으로 자주 기록된다. Stadler가 그날 연주회를
열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프로그램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K. 622가 실제로 연주되었다는 결론에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

완성본은 인쇄 자료로만 전한다. Offenbach의 André, Paris의 Sieber, Leipzig의 Breitkopf & Härtel이 약 1801년에 파트보를 냈지만 세 판의 정확한 선후와 모본은 밝혀지지 않았다. 1802년 Allgemeine musikalische Zeitung의 평자는 Mozart가 저음 C까지 내려가는 클라리넷을 위해 곡을 썼다고 설명하면서 , 인쇄본에서 옥타브가 바뀐 대목들을 악장별로 지적했다. 낮은 음역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문헌이다.

단편과 현대 비평판

K. 584b/K.6 621b는 G장조 바셋호른 협주곡 악장으로 시작하는 199마디의 자필 단편이다. 현재 Köchel Catalogue는 이 단편을 1787–1790년으로 추정한다. 후반에 A장조와 바셋 클라리넷의 음역으로 전환되며, 완성된 K. 622 제 1악장과 대응하는 재료를 담고 있다. 제 1악장 복원에는 강한 근거가 되지만, 완성 협주곡의 자필 총보와 동일한 자료는 아니다.

Franz Giegling이 편집한 Neue Mozart-Ausgabe는 바셋 클라리넷 복원판과 전통 A클라리넷판을 나란히 수록한다. Henrik Wiese의 Henle 판도 두 독주 파트를 제공한다. 다만 Henle 서문은 1802년 평론이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열한 곳과 그 밖의 추정 구간을 구분한다. 출판사와 편집자마다 병행 구절, 화성, 관현악 배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셋 클라리넷 원전판 ”이라는 말만으로 세부 음형이 모두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소요 시간

전곡은 대체로 약 28–31분 걸린다.

제 1악장: 약 12–13분
제 2악장: 약 7–8분
제 3악장: 약 8–9분

음반의 실제 수록 시간은 약 27분 30초부터 30분 40초까지다. 악기와 판본, 템포, 페르마타 장식이
달라지므로 시간 차이만으로 반복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편성

Solo Basset Clarinet in A 또는 Solo Clarinet in A; 2 Flutes; 2 Bassoons; 2 Horns; Violins I and II; Viola; Violoncello; Double Bass.

오보에, 관현악 클라리넷, 트럼펫, 팀파니는 없다. 독주 구간에서는 현악 중심의 얇은 반주가 이어지고, 플루트·바순·호른은 전합주에서 구획과 색채를 더한다. *Neue Mozart-Ausgabe* 서문은 `SOLO`와 `TUTTI` 표기가 형식 표지뿐 아니라 당시의 연주 인원 운용과도 관계한다고 설명한다. 작은 현악 편성을 선택할 수 있지만, Mozart의 반주 자체가 이미 투명하므로 무조건 감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I. `Allegro` — 리토르넬로와 소나타 기능

제 1악장은 A장조의 관현악 도입으로 시작한다. 관현악은 같은 주제군을 조성과 질감을 바꾸어 이어 가고, 독주 클라리넷은 그 문장을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고 자기 음역에 맞는 선율과 새 재료를 보탠다. 네 합주부와 세 독주부가 교대하는 고전 협주곡의 틀 안에서 제시, 전개, 재현의 기능이 작동한다.

독주부는 높은 음역의 가벼운 움직임과 중음역의 연결, 낮은 음역의 종지를 한 선 안에서 오간다. 바셋 클라리넷 복원판을 들을 때는 하강 선율이 갑자기 위로 접히지 않고 저음으로 계속 향하는 지점을 찾아볼 만하다. 전통 A클라리넷판에서는 같은 대목이 옥타브 이동이나 다른 음형으로 정리되어 선율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 악장에는 고전 협주곡에서 기대할 법한 대규모 종결 카덴차 자리가 없다. 대신 두 페르마타에서 짧은 `Eingang`이나 장식을 더할 여지가 있다. Sabine Meyer는 이 지점의 변주와 넓은 음역을 가로지르는 16분음표를 가볍게 잇는 일을 실연 과제로 꼽는다. 장식의 길이보다 악장 안의 흐름을 끊지 않는지가 관건이다.

II. `Adagio` — 독주 선율과 관현악의 응답

제 2악장은 D장조의 3부 형식이다. 독주 클라리넷이 긴 선율의 각 구를 먼저 내고, 관현악이 이를 받아 응답한다. 중간부에서는 음형이 더 잘게 움직이고 음역이 넓어진다. 첫 선율이 돌아올 때에는 처음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축약된 귀환과 코다로 악장을 닫는다.

바셋 클라리넷과 전통 A클라리넷의 차이는 여기서 단순한 최저음의 유무를 넘어선다. 1802년 평론이 지적한 대목에서도 낮은 음이 위로 옮겨졌고, 그 결과 한 선율 안의 음역 대비가 달라진다. Meyer는 이 악장의 긴 선을 둥근 음색으로 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숨을 오래 쓰는 것만큼 각 구를 관현악의 응답과 맞물리게 듣는 일이 중요하다.

III. `Rondo. Allegro` — 후렴의 귀환을 늦추는 피날레

피날레는 A장조, 6/8박자의 론도다. 독주와 관현악이 함께 제시하는 후렴 사이로 성격이 다른 세 에피소드가 들어온다. 서정적인 제 2소재와 단조 에피소드가 지난 뒤에는 완전한 후렴보다 제 2소재가 먼저 돌아온다. 익숙한 후렴의 귀환을 뒤로 미루는 이 순서가 마지막 전합주의 도착을 또렷하게 만든다.

독주자는 빠른 음형을 균일하게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후렴과 각 에피소드의 성격을 구별해야 한다. 저음으로 떨어지는 선율은 바셋 클라리넷의 확장 음역을 구조적으로 드러내며, 높은 음역의 경쾌한 구절과 대비된다. 관현악은 독주와 경쟁하기보다 후렴의 경계를 세우고 조성 전환을 분명히 한다.

판본 선택과 실연

연주 준비에서는 악기 이름과 함께 실제 판본을 확인해야 한다. Keith Koons가 K. 622의 출판 판본들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초기 인쇄본에는 셈여림과 아티큘레이션 표시가 적고, 현대판 다수는 연주를 돕기 위해 이를 보충했다. 추가 표시를 점선 슬러나 괄호로 구분한 판본이 있는 반면, Mozart의 기보와 편집자의 제안을 나누어 표시하지 않은 판본도 있다. 낮은 음의 복원뿐 아니라 슬러, 셈여림, 페르마타와 Eingang 도 판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 584b/621b와 1802년 평론이 직접 뒷받침하는 구간, 병행 구절과 화성에서 추론한 구간의 확실도 역시 같지 않다. 바셋 클라리넷판은 Mozart가 상정한 확장 저음역을 되찾지만 복원의 세부까지 모두 확정하지는 못한다. 전통 A클라리넷판은 약 1801년의 인쇄 전승과 오랜 연주사를 지닌다. 어느 쪽을 택하든 옥타브
이동이 선율의 종착점과 관현악 저음의 배치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야 한다.

Sabine Meyer — 음역의 교대와 노래하는 선

Sabine Meyer는 손가락의 기계적인 움직임보다 클라리넷의 노래하는 성질, 음색 조절, 아티큘레이션과
프레이징을 우선한다고 설명한다. K. 622에서는 이 관점이 악기 선택과 이어진다. Meyer의 설명에 따르면
표준 A클라리넷판에서는 100마디가 넘는 독주부가 한 옥타브 위로 바뀌며, 특히 Adagio 중간부와 피날레는
높고 낮은 음역의 지속적인 교대에 기대고 있다. 이는 바셋 클라리넷을 지지하는 Meyer 자신의 입장이지만 , 두 판본을 비교할 때 단순히 최저음의 수만 세지 않고 선율의 진행과 음색 변화까지 들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준다.

제 1악장의 16분음표와 Adagio 의 긴 선을 음역별 효과로 잘게 나누지 않고 하나의 호흡으로 잇는 접근도
여기에서 나온다.

Martin Fröst — 독주부 밖의 총보 듣기

Martin Fröst는 스승 Hans Deinzer와 K. 622의 한 프레이즈를 45분 동안 다루며 레가토와 음색을 만들고, 자신이 낸 소리를 듣는 훈련을 했다고 회고한다. 그는 이 협주곡을 공부할 때 Mozart의 교향곡 31–41번을 읽고 들으며 각 악기를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라고 권한다. 독주하며 지휘한 경험을 통해서는 오케스트라
전체를 듣고 악기 사이를 오가는 작은 에너지를 파악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관점에서 독주자가 쉬는 Tutti 는 다음 독주를 기다리는 빈 구간이 아니다. 플루트ㆍ바순ㆍ호른이 주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 현악의 반주가 언제 얇아지는지까지 들으면 독주 진입의 음색과 호흡도 달라진다. 여기에 Neue Mozart-Ausgabe 서문의 연주 인원 논의를 겹치면, 낮은 독주 음역에서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무게를 조절하고 Tutti 와 독주 구간의 현악 규모를 연주 공간에 맞추는 문제가 구체화된다 .

Charles Neidich — 기보와 장식의 선택

Charles Neidich의 2018년 판본은 슬러가 diminuendo를 암시할 수 있다는 해석, appoggiatura의 표현적 비중, 대다수 트릴을 윗음에서 시작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Leopold Mozart의 설명을 근거로 messa di voce 를 vibrato 대신 시대에 맞는 음의 성장과 감쇠를 만드는 한 방법으로 다룬다. 이런 표시는 Mozart의 완성 자필보에서 그대로 옮긴 지시가 아니라, 시대 자료를 바탕으로 한 Neidich의 편집ㆍ연주 제안이다.

Neidich `Adagio` Eric Hoeprich Leonard Ratner . , appoggiatura .

A

A , .

Thea King / English Chamber Orchestra / Jeffrey Tate (Hyperion, 1985)

Thea King . *BBC Music Magazine* , 2006 *Building a Library* First Choice . 13:25 / 7:52 / 9:27 .

Jack Brymer / London Symphony Orchestra / Colin Davis (Philips, 1964)

Jack Brymer A . *BBC Music Magazine* Mozart .

Martin Fröst / Amsterdam Sinfonietta / Peter Oundjian (BIS, 2003)

Martin Fröst A , Amsterdam Sinfonietta 27 35 . 12:12 / 6:59 / 8:24 . Adagio .

B

- Neue Mozart-Ausgabe V/14/4 : , , K. 584b/621b, 1802 .
- Digital Köchel Catalogue, K. 622: , Stadler, .
- Mozart 1791 10 7–8 : “Stadler Rondo” 1 .
- Henle HN 729 : , , .

박지영,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K.622》의 구조 분석」: 제 1악장의 합주부ㆍ독주부 배치와 협주곡형 소나타 구조를 분석한다.
Houston Symphony 작품 해설: 세 악장의 진행과 카덴차가 없는 제 1악장의 설계를 설명한다. BR-KLASSIK의 Sabine Meyer 인터뷰: 선율, 음역, 페르마타와 앙상블에 관한 연주자의 견해를 전한다.
Bachtrack의 Sabine Meyer 인터뷰: 노래하는 음색, 아티큘레이션ㆍ프레이징 , 바셋 클라리넷과
표준 A클라리넷판의 음역 차이에 관한 직접 발언을 전한다.
International Clarinet Association의 Martin Fröst 인터뷰: K. 622의 레가토ㆍ음색 훈련, 총보 학습과 오케스트라 전체를 듣는 접근을 설명한다.
International Clarinet Association의 Charles Neidich 판본 서평: appoggiatura, 트릴, messa di voce, 장식과 편집 표시를 둘러싼 제안을 평가한다.
Keith Koons의 K. 622 판본 비교: 판본별 편집 추가, 아티큘레이션ㆍ셈여림 , 페르마타ㆍ Eingang 과 Tutti 참여 문제를 비교한다.
BBC Music Magazine 음반 비교: Thea King, Jack Brymer와 Martin Fröst 녹음의 비평적 위치를 비교한다.